

중등과정 프랑스어의 발음 교육 문제*

한문희
(서울대학교)

Han, Mun Hi. (2013) Teaching of French Pronunciation in Secondary Educati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6, 147-168.

In general the pronunciation of French is not easy to learn, especially for beginners. The students of secondary education have much difficulty pronouncing French words which often creates fear, deters students and even makes them give up to practice French language. Our purpose is to present a phonetic system for the French novice not only to encourage communication in language but also which helps to learn easily and with interest. So we examined what is the norm for the pronunciation of French and analyzed the text books used in schools and the teaching materials for "FLE" in France. As a result, we found that seven oral and three nasal vowels are considered sufficient for communication. For the consonants there are almost no variations according to the standard or standardized French pronunciation.

Key Words: French pronunciation, teaching of pronunciation, standard French, standardized French, norm, phonetic system

I. 서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적어도 말의 연쇄에서 의미가 통하도록 발음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외국어에서 의미가 통하기 위해서는 발음된 소리가 그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소리, 즉 원어민들이 청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소리에 부합되어야 하고 그 소리들이 모여서 어떤 전언을 형성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외국인들에게는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외국어를 정확히 듣고 따라 하는 훈련이 필요한 발음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1970년대 외국어 교육에 의사소통 접근법이 도입되면서 발음교육은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다. 즉 화용론적이며 사회언어학적인 차원을 강조하다 보니 의사소통 능력에서 문법구성부와 음운부가 상대적으로 묻혀 버린 셈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음성학과 음운론은 또 다시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

* 이 연구는 2013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육에서 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는 유창한 어휘 능력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정확한 발음습득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품위 있는 프랑스어 구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시되고, 이에 따라 문어에 비해 구어의 중요성과 역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어 교육에서도 발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다시 필요한 때이다.

프랑스어 발음 교육의 최소한의 목적이 의사소통에서 의미의 혼동을 피하고 불편 없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할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초보 학습자들을 위한 발음교육은 프랑스어 발음의 다양성을 구사하게 하기 보다는 참조가 될 수 있는 규범을 한정 지어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 교수자들은 프랑스어 발음 교육의 목표를 주로 "모국어 화자와 유사한 발음"으로 삼고, 대부분의 경우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하는 것이 프랑스어 발음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프랑스어 교수법의 흐름이 점차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발음교육의 목표도 이러한 시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실 한국인 학습자가 프랑스인 화자와 거의 유사하게 발음한다는 것은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목표라 할 수 있다. 또 프랑스인과 똑같이 발음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의사소통이 더 잘되는 것도 아니다. 발음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화상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실 발음이 조금 어설피다 하더라도 어법에 맞는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발음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개발되어 유럽공동참조기준의 개발에도 적용된 의사소통중심접근법은 언어 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으로 보기 때문에, 문법과 어휘가 숙달되었더라도 발음을 알지 못하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지 못한다고 발음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발음 교육의 목표를 정확한 발음 습득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수준의 발음 습득에 두었다. 따라서 발음교육의 중심도 분절음이 아니라 강세, 리듬, 억양과 같은 초분절 음소에 두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경우에는 발음지도에 대한 교수자들의 더 탄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것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본 표현들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하여 기초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프랑스어의 음운체계를 상세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는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어휘수가 제한되어 있고, 문장의 구조, 문법의 수준도 기본에 머물기 때문에, 발음도 세밀하게 자세히 가르치기 보다는 음소의 대립차원에서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로 대별하여 교육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고등학교 과정 프랑스어 교육에서 참조할 수 있는 발음의 규범문제를 밝히고 특별히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의 범위를 가려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프랑스어 발음의 내용과 변화의 진행과정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에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와 프랑스에서 발행된 FLE 교재, 발음만을 다룬 전문서적에 담긴 발음지도 부분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수준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발음 학습의 범위를 제시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신장 및 학습 동기의 부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규범

프랑스 학자들은 발음의 규범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또 우리가 프랑스어의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정의

Gadet (2003:15)는 규범에 속하는 형태와 규범에 속하지 않는 형태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규범이란 같지 않음을 고려하게 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규범이란 첫 번째 의미로 “정상적”, 규칙적인 것을 나타내며, 비 규칙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이 여기에 대립된다. 사실 “규범”이라는 용어가 매우 다의적이기 때문에, 그는 객관적 규범과 주관적 규범의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객관적 규범이란 관찰할 수 있는 언어, 즉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언어에 부합되는 것이며, 주관적 규범은 언어의 가치체계 발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규범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언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은 화자들이 언어에 대한 편견을 공유해야 하며, 체계의 한계를 넘어서서 초규범(surnorme)에 이를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하므로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프랑스어를 가르치거나 배울 때 프랑스인들의 발음이 실제로 상당히 다양하다는 현실에 직면한다. 프랑스어 발음은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체상이나, 심지어 역사적으로도 매우 다르게 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부지방 발음과 북부지방, 특히 Ile de France의 발음과는 차이가 있다. 원어민의 발음을 가르친다고 해서, 초보자들에게 이러한 다양성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리이며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참조가 되는 규범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내용과 자료 가운데서 어떤 것을 무슨 원칙에 따라 가려내어 가르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것은 외국인 학습

자들에게 적합한 중립 형태의 언어를 택해야 할 것이다.

Valdman (1998:180)은 교육적 규범으로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 1) 원어민 화자들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구어를 반영해야 한다.
- 2) 원어민 화자들의 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이상적 시각에 부합되어야 한다.
- 3)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언어 행위 유형에 관계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기대와 원어민 화자들의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
- 4) 학습과 지도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교육적 규범은 하나가 아니라, 각 학습자군의 모국어에 따라 정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범이 된다. 그러나 두 번째 원칙에서 “원어민 화자들의 이상적 시각” 과 세 번째에서 “외국인 학습자들과 원어민들의 기대” 에 해당하는 의미는 모호한 면이 있다.

Mounin(1975)은 Martinet와 Walter가 공동 저술한 *Dictionnaire de la prononciation française dans son usage réel*(1973)을 예로 들면서 규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바 있다. 이 사전은 17명의 피험자가 50,000 단어를 발음한 것으로부터 결과를 추출해낸 것으로 20%는 발음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발음의 규범이 없다고 결론 내리기는 불가능하며, 확인된 실제 용법에서 극단적인 다양성은 일부 한도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전의 저자들도 실제 생활에서는 구별되는 계층에 따라 규범도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 규범을 바꿀 줄 아는 것이 바로 말을 잘 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의무적인 발음은 있을 수 없고, 대개는 “추천할 수 있는(recommandable)” 발음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상적인 발음은 사람들의 주의를 전혀 끌거나 되돌리지 않으면서 말한 것을 그대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Larousse에서 1980년에 출간된 *Dictionnaire de la prononciation*을 살펴보면, 서문(10-11)에서 Lerond은 “중립 프랑스어(français neutre)” 와 “남불 억양(accent du midi)” 을 대립시켰다. 중립 프랑스어란 귀에 두드러지지 않는 발음으로 파리인들의 발음을 뜻하며, 남불 억양이라는 표현은 중립 프랑스어 체계와 매우 다른 모음과 자음의 구조를 포함한다고 했다. 그 구조에는 비모음 [ɑ] [œ], [ɛ], [ɔ]이 존재하지 않고 [A], [œ/ø], [E], [o] 뒤에 비자음 [m], [n], [ŋ]을 덧붙이는 것이다. 또 단어 끝이나 단어 내부에 “무음 e [ə]” 를 항상 나타내는 것, 등이다.

그리고 Borell과 Billieres(1989)는 발음 규범의 첫 번째 참조기준은 “교양있는 파리사람들의 프랑스어(français parisien cultivé)” 였다고 하며, 그 다음에는 “표준 프랑스어(français standard)” 가 뒤를 잇고, 아주 최근에는 “표준화한 프랑스어(français standardisé)” 로 대치되었다고 한다.

이들의 다양한 주장을 보면, 음성학적 관점에서 규범이란 파악하기가 더

어렵고, 실제 시행되고 있는 규범의 선택이 막연하기 때문에, 현대 프랑스어의 음성학적 규범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는데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프랑스어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때, 교재개발자나 교수자가 이미 시대에 훨씬 뒤졌거나 낡아빠진 규범을 참조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 중등 과정 프랑스어에서 다루어야 할 발음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프랑스어 교육에서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 프랑스어 음운체계를 기술하고 표준화한 프랑스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2. 표준 프랑스어 음운체계

Léon(2009:17)은 공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 배우, 아나운서, 정치가, 등에게는 출신 지역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충분히 공통적인 발음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준 프랑스어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점점 프랑스어권 전역으로 확대되지만,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가장 분명한 것은 의사소통 상황에 달려있다고 한다. 우리는 강단, 사무실, 집이나, 가족끼리 또는 가까운 친구끼리 똑같은 방법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Léon(2007:96-98, 115)과 Léon & Thomas(2008:9-10)을 참조하여 표준 프랑스어 음운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음

구강모음은 12개, 비모음은 4개이다.

구강모음

	antérieures		postérieures	
	écartées	arrondies	écartées	arrondies
très fermées	i(si)	y(su)		u(sous)
fermées	e(ses)	ø(ceux)		o(seau)
moyenne		ə(ce)		
ouvertes	ɛ(sel)	œ(seul)		ɔ(sol)
très ouvertes	a(patte)		ɑ(pâte)	

비모음

antérieures		postérieures
écartées	ε(vin)	a (vent)
arrondies	œ(un)	o (vont)

2) 자음

자음은 모두 18개이고, 반자음이 3개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외래어에서 차용된 단어인 camping, parking과 같은 단어에 나타나는 [ŋ]을 프랑스어 자음체계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폐쇄음

lieux modes	bilabiales	dentales	dorso- palatale	dorso-vélaires
non voisées (sourdes)	p(pont)	t(tes)		k (cou, qui, écho)
voisées (sonores)	b(bon)	d(dé)		g(goût)
nasales	m(mon)	n(nez)	ɲ (agneau)	ŋ (camping)

마찰음

lieux modes	labio- dentales	alvéolaires	prépalatales- labiales	apico- alvéolaire (latérale)	dorso- uvulaire
non voisées	f(fou)	s(seau)	ʃ(chou)		
voisées	v(vous)	z(zèbre, osé)	ʒ(joue, âgé)	l(bal)	ʀ(rat)

반자음

	médio-palatales	vélaire
écartée	j(hier, bien)	
arrondies	ʃ(essuyer)	w(voyez)

3. 표준화한 프랑스어

표준화한 프랑스어 발음이란 프랑스인들 전체에게 공통적이며 도처에서 인정되는 발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발음 관련 사전(Le Robert 1989; Warnant L.1987; Martinet A. et Walter H.1973)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Léon P. 1966, 2009; Fouché P. 1968)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준화한 프랑스어의 모음과 자음, 운율에 대한 뚜렷한 특징을 간단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음

- ① 폐모음 [i], [y], [u] 는 한 가지 음색만을 나타낸다.
- ② 무음 [ə]는 발음된 자음이 단 하나만이라도 앞에 오면 탈락된다.
- ③ 개모음 [a]와 [ɑ]의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대립은 사라졌다.
- ④ 비모음 [œ]은 [ɛ]으로 통합되었다.
- ⑤ 두 가지 음색이 있는 [e]와 [ɛ], [ø]와 [œ], [o]와 [ɔ]는 강세음절에서 폐음절이면 개모음이 오는 상보적 분포의 법칙을 따른다. 그리고 [e]와 [ɛ]의 대립, [ø]와 [œ]의 대립은 개음절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o]와 [ɔ]의 대립은 폐음절에서 유지된다. 표준화한 프랑스어에서는 비강세 위치에서 모음은 중간 정도로 되려는 경향이 있다.

2) 자음

반자음 [j] 는 [i]로 모음화 되지 않는 반면에, [ʃ] 와 [w]는 [y]와 [u]로 모음화 된다.

[ʀ] 에 [ʁ]은 용납되지만, [r]는 허용하지 않는다.
자음체계에서 이들 이외의 자음은 동질성을 유지한다.

3) 운율

표준화한 프랑스어에서 강세는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더 약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나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오며 지속길이가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억양은 표현적인 기능이 아닐 때는 지방 프랑스어보다 표준화한 프랑스어에서 굴곡이 훨씬 덜 나타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표준화한 프랑스어는 표준 프랑스어에 비해 체계 내에서 음소 간의 대립의 수가 훨씬 적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모음은 [a] / [ɑ]의 대립이 사라지고, [œ]은 [ɛ]으로 통합되었으며, 중간 간극도의 모음인 [e]와 [ɛ], [ø]와 [œ], [o]와 [ɔ]의 구별도 약해졌다.

일반적으로 자음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표준 프랑스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반자음은 [j]를 제외하고 [ɥ]와 [w]가 [y]와 [u]로 모음화 되는 경향이므로 역시 앞으로 더 간단한 체계로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

Ⅲ. 교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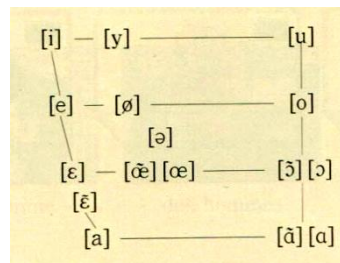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랑스어 교과서와 프랑스어에서 출간된 FLE 교재, 그리고 발음 전문 서적을 선택하였다.

1. 한국의 중등 교과서

이제 우리나라 현 중등과정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랑스어 교재는 어떤 기준과 체계를 적용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 분석에는 2007년 교육개정 이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박영사의 『Le français I』¹, 천재교육의 『Le français I』² 두 종류와 외국어계 고등학교에서 발음 분야 교육에 해당되는 청해 교재 『Écoutons ensemble!』³을 대상으로 삼았다.

1) 박영사의 『Le français I』

발음소개는 1과가 시작되기 전에 “C'est parti” 부분에서 구강의 그림과 함께, 모음체계를 소개하고 모음, 비모음, 반모음, 자음을 그것이 포함된 단어와 함께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¹ 조항덕, 심봉섭 공저, 2011.

² 전경준, 김길수, 김경량, 나은정 공저, 2012.

³ 강성영, 김명관, 이연숙, 하영동 공저, 2011, 교육과학기술부.

모음(voyelles)

[i] souris	[e] clé	[ɛ] fer	[a] maman
[ɑ] pâte	[ɔ] pomme	[d] dos	[u] genou
[y] tête	[ø] deux	[œ] fleur	[ə] premier

비모음(voyelles nasales)

[ɛ̃] pain	[ɑ̃] dent	[ɔ̃] ombre	[œ̃] brun
-----------	-----------	------------	-----------

반모음(semi-voyelles)

[j] yeux	[w] oui	[ɥ] huile
----------	---------	-----------

이 책에서는 앞서 우리가 제시한 표준 프랑스어 음운체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발음마다 그것이 포함된 단어를 함께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자음은 [ŋ]을 포함하여 18개, 모음 16개, 반모음 3개를 프랑스어 체계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반자음을 반모음으로 지칭한 점은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다. 물론 [j], [w], [ɥ] 를 통상 반모음 또는 반자음으로 부르면서 엄격하게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게 다반사이지만, 이것은 학계의 이론으로 자음의 특성이 뚜렷하므로 “반자음”이라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Straka(1963:56)에 따르면 강하게 발음했을 때 자음은 조음기관이 닫히고, 모음은 열리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j], [w], [ɥ]는 강하게 발음했을 때 기관이 닫히게 되므로 반자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음

[p]parents	[t]tortue	[k]carte	[b]bon
[d]ardent	[g]garage	[f]femme	[s]sable
[ʃ]château	[v]vent	[z]poison	[ʒ]jaune
[l]lac	[ʀ]racine	[m]matin	[n]nager
[ɲ]campagne	[ŋ]parking		

2) 천재교육의 『Le français I』

모 음			
A l' oral	A l' écrit	comme dans...	
	.		
/a/	a	table, madame, ami	
/ə/	e	le, je, de, demi	
/œ/	/ø/	eu	deux, jeu, bleu, peu
	/œ/	eu, œu, œ	jeune, fleur, heure, sœur, œil
/E/	/e/	é, er, ez, et, es	été, cinéma, parler, parlez, juillet,
	/ɛ/	è, ê, ei, ai, e	des père, tête, treize, français, elle
/O/	/o/	ô, -o, au, eau	hôtel, allô, gros, aussi, eau
	/ɔ/	o	portable
/i/		i, y	midi, ski, stylo
/y/		u	tu, rue, jupe, bus
/u/		ou	tout, poulet, où
/wa/		oi	moi, toi, foie

비 모 음		
A l' oral	A l' écrit	comme dans...
/ã/	an, am, en, em	anglais, enfant
/ɛ/	in, im, aun, ein, aim, un, um	matin, demain, faim, un lundi
/ɔ/	on, om	non, bon, prénom, combien

반 모 음		
A l' oral	A l' écrit	comme dans...
/w/	ou, oi	oui, moi
/ʁ/	u	lui, nuage
/j/	i	pied, fille

자 음		
A l' oral	A l' écrit	comme dans...
/b/, /v/	b/v	bois, baguette/vélo, voiture
/s/, /z/	s, ss, c (e, i, y 앞) / z, s (모음 사이)	stylo, dessert, Nice zéro, maison, musée
/ʃ/, /ʒ/	ch/j, g (e, i, y 앞)	chambre, chocolat/jolie, jeune, gentil
/k/, /g/	k, qu, c (a, o, u 자음 앞) / g (a, o, u 자음 앞), 히	kilo, qui, café, sac, crêpe grand, gâteau, langue
/m/, /n/, /ɲ/	m/n/gn	mère/nom/Champagne
/ʀ/, /l/	r/l	robe, frite/lycée
/p/, /f/	p/f, ph	père/fils, pharmacie
/t/, /d/	t/d	tes/dans

이 교재는 중간 간극의 모음과 비모음은 표준화한 프랑스어의 체계를 따랐다. 자음도 표준 프랑스어에서 제시한 [ŋ]은 소개하지 않았다.

3) 교육과학기술부의 『Écoutons ensemble!』

이 책에서 프랑스어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나 설명은 없다. 다만 제일 먼저 선보이는 “차례” 다음으로 “이 책의 구성”을 과별로, objectif, le savez-vous?, prononciation의 세 항목으로 주요 요점을 알리는데, 바로 prononciation 항목에서 발음이 소개되어 있다. 1, 2과에서는 음절의 수와 연음을 먼저 다루고, 개별 발음은 3과부터 12과에 걸쳐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Leçon 1 le nombre de syllabes
Leçon 2 liaison
Leçon 3 [i], [y], [u]
Leçon 4 [ø], [o], [ø]+[o]
Leçon 5 [ə], [e], [ɛ]
Leçon 6 [ɛ], [œ], [ɛ]+[œ],
Leçon 7 [ã], [ɛ̃], [ɔ̃]
Leçon 8 [j], [ʎ], [w]
Leçon 9 [p], [b], [v]
Leçon 10 [f], [v], [f]+[v]
Leçon 11 [z], [ʒ], [ʒ]
Leçon 12 [s], [ʃ], [s]+[ʃ]

이것을 보면 모음에서는 [ɔ], [ø],[œ]이 빠져있고, 자음은 [t],[d],[R],[l],[m],[n],[ɲ],[k],[g]가 항목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문의 내용에 이들 음소가 포함된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외국어계 고등학교의 언어교과가 독해, 작문, 회화 등으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보충 설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술 내용은 표준화한 프랑스어 체계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2. 프랑스의 FLE 교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랑스 출판 FLE 교재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나뉘어 있다. 이 분석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교재로, *Oh là là*⁴, *Junior Plus I*⁵, *Alter ego*⁶의 세 종을 택했다. 이 연구가 중등 과정에서 가르치는 프랑스어 발음을 다루는 것이 주제이므로, 청소년(adolescent)을 위한 교재를 분석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또 이들 교재가 Clé international 과 Hachette 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FLE 교재 출판사의 출간물이기 때문이다.

1) 『Oh là là』

교재의 내용을 알리는 앞부분에서 “phonétique”란에 소개된 발음에 관한

⁴ C. Favret, M. Bourdeau, I. Gallego et E.Muguruza (2006), Clé international.

⁵ I. Saracibar, D. Pastor, C. Martin et M. Butzbach (2005), Clé international.

⁶ A. Berthet, E. Daill, C. Hugot, V. M. Kizirian et M. Waendendries(2012), Hachette

내용은 아래와 같다.

leçon 0	unité 1(leçon 1-3)	unité 2 (leçon 4-6)	unité 3(leçon 7-9)
son-graphie: /ɛ/, /u/, /o/, /wa/	le/les: /ə/, /e/ son-graphie: /s/, /z/, /ks/	/ɛ/, /œ/, /ø/	les nasales /ɑ/, /ɔ/, /ɛ/ /ʃ/, /ʒ/

위 내용을 보면 모든 음소가 다 열거되지 않았지만, 중간간극도의 모음은 /e/, /ɛ/, /ø/, /œ/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비모음은 /œ/을 /ɛ/에 통합시켜 3개로 소개한다.

2) 『Junior plus 1』

여기에서는 발음을 sons et rythmes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dossier0	dossier1	dossier2	dossier3	dossier4	dossier5	dossier6
	[ɔ] de crayon [ʒ] de janvier	[y] de tu [u] de cousine [ɑ] de soixante		[z] de masque [s] de same야 [ɛ] de voisin	[ʃ] de cheveux [ø] de deux [œ]de voleur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발음이 위의 항목이지만, 본문의 내용에는 다른 모음, 자음, 반자음이 포함되어 있다. [ø] 와 [œ]를 구별한 것으로 보아, 다른 중간 간극도의 모음들도 개모음, 폐모음의 음색을 구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Alter ego+』

(1) les voyelles du français

voyelles orales		
aiguës	aiguës et labiales	graves et labiales
[i] livre, type	[y] tu, sûr	[u] vous
[e] chez, les, parler, école	[ø] il veut, un voeu	[o] beau, chaud, côte, météo
[ɛ] très, lunettes, faire	[œ] seul, coeur	[ɔ] sport, mode
[a] mardi	[ə] me, regarde	[ɑ] pas, pâte

voyelles nasales		
aiguës	aiguës et labiales	graves et labiales
[ɛ] matin, pain, bien, sympa	[œ] un	[ɔ] bon, nombre
		[ɑ̃] an, cent, jambon, temps

(2) les principales consonnes du français

aiguës	aiguës et labiales	graves et labiales	neutres(graves ou aiguës selon le contexte)
[s] si, passion, cinéma, français	[ʃ] chat	[f] femme, photo	[k] qui, concours, d' accord
[z] cuisine	[ʒ] jour, gel	[v] vivre	[g] magazine, guide
[t] tête		[p] porte	[r] rire
[d] deux		[b] bouche	
[n] nous		[m] musique	
[ɲ] se baigner			
[l] île			

(3) les semi-consonnes du français

aiguë	aiguë et labiale	grave et labiale
[j] voyage, émission, fille	[ʎ] nuit	[w] louer, oui, voir

이 책은 모음, 자음 모두 프랑스어 표준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외래어에 나타나는 [ŋ]은 순수 프랑스어가 아니므로 제외한 듯하다.

3. 발음 전문 교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이외에도 프랑스어 발음 전문서에 나타나있는 음운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초보자를 위한 *phonétique en dialogues(niveau débutant)*⁷, *phonétique progressive du français(débutant)*⁸, *sons et intonation*⁹의 세 종류를 선택하였다.

1) 『Phonétique en dialogues, niveau débutant』

이 책에서 소개하는 체계는 다음과 같다.

consonnes		voyelles	semi-consonnes
non voisées	voisées		
	/b/bus	/i/idée	
	/d/deux	/E/([e] ou [ɛ] égoïste	
	/g/gare	/a/art	
/p/ pourboire	/v/vagabond	/y/rue	/j/ pied
/t/ taxi	/z/plaisir	/œ/([ø]) ou [œ] le	/ʎ/ nuit
/k/carte	/ʒ/joie	/u/sourd	/w/ oui
/f/fou	/m/mère	/O/[o] ou [ɔ] olive	
/s/saumon	/n/nous	/E/([ɛ]) ou [œ] un	
/ʃ/chemise	/ɲ/montagne	/a/blanc	
	/ŋ/camping	/o/citron	
	/l/lettre		
	/r/rire		

⁷ B. Martinie,et S. Wachs, ,2007, Clé international, Paris

⁸ L.Charliac, J-T. Le Bougnec, B. Loreil et A-Cl. Motron, 2012, Clé international, Paris.

⁹ C. Martins & J.-J. Mabilat, 2004, Les éditions Didier, Paris.

이 발음교재는 초보자들의 발음을 교육하기 위해 중간간극의 모음을 음색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E/, /œ/, /O/, /A/으로 원음소의 발음을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자음에는 차용된 외래어를 위해 /ŋ/을 도입하고, 반자음에도 분명하게 그 실현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

2) 『Phonétique progressive du français, débutant』

les voyelles

/i/ six	/y/ une	/u/ douze
/E/ pied, père	/œ/ deux, fleur	/O/ dos, bol
/A/ sac, bas		
/ε/ quinze	/a/ cent	/o/ onze

les semi-consonnes

/j/ viens	/ɥ/ huit	/w/ trois
-----------	----------	-----------

les consonnes occlusives (momentanées)

/p/ pont	/t/ toit	/k/ car
/b/ bus	/d/ doigt	/g/ gare

les consonnes constrictives (continues)

/f/ fille	/s/ si	/ʃ/ chat
/v/ verre	/z/ zéro	/ʒ/ jardin

les consonnes nasales

/m/ main	/n/ non	/ɲ/ signe
----------	---------	-----------

les consonnes /l/-/ʀ/

/l/ ciel	/ʀ/ terre
----------	-----------

이 책의 특징은 중간간극 모음과 대간극 모음을 /E/, /œ/, /O/, /A/ 로 소개하여 개모음과 폐모음 또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대립을 나타내지 않았다. 물론 비모음 [œ] 도 [ε] 으로 통합하여 /ε/으로 선보였다. 자음에서 /ŋ/은 소개하지 않았다.

3) 『Sons et intonation』

les consonnes		
/p/ pont	/t/ toit	/k/ car
/b/ bus	/d/ doigt	/g/ gare
/f/ fille	/s/ si	/ʃ/ chat
/v/ verre	/z/ zéro	/ʒ/ jardin
/m/ main	/n/ non	/ɲ/ signe
/l/ ciel	/ʀ/ terre	

r[ʀ]	/	l [l]
s[s]	/	z [z]
ch [ʃ]	/	j [ʒ]
p [p]	/	b [b] / v [v]
f [f]	/	v [v]
t [t]	/	d [d]
k [k]	/	g [g]

les sons		
i [i]	u [y]	ou [u]
e [ə]	é [e]	è [ɛ]
les nasales		
an [ɑ]	in [ɛ̃]	on [ɔ̃]
o [ɔ]	ô [o]	
eu [ø]	eu [œ]	
les semi-consonnes		
[w]	[j]	[ʋ]

이 저자들은 alphabet phonétique du français (A.P.F.) 로 모음 16개, 자음 17개, 반자음 3개를 소개하고 있지만, 본 내용에서는 위의 소리만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모음의 음색을 모두 구별하고 반자음도 별 언급 없이 그대로 나타내서, 자음에서는 /ɲ/만을 제외시킨 점이 표준프랑스어 체계와 다를 뿐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등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인 저자의 교재, 프랑스어 출간물인 FLE 교재와 발음 전문 서적에 나타난 프랑스어

음운체계를 분석하고 비교해보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목되었다. 자음은 거의 변화가 없고, 다만 [ŋ]을 포함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반해 모음에서 차이는 훨씬 두드러졌으며, 그것은 비모음, 중간간극도와 대간극도의 구강모음이었다. 이것은 일부 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 학습교재를 저술할 때는 특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랑스어 체계의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IV. 중등 발음교육을 위한 체계

위에서 살펴본 표준 프랑스어 체계는 10개의 구강모음과 3개의 비모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소위 북부 프랑스의 발음이며, 더 정확하게는 일 드 프랑스와 프랑스 중심지에서 사용하는 프랑스어 발음이다. 이 체계는 7개의 구강모음과 4개의 비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남부(남서부와 남동부 모두) 프랑스어 체계에 대립된다.

그러나 음운론적 변이와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발음체계의 규범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Valdman의 교육적 규범의 개념에 근거하면 프랑스어로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음운체계를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프랑스어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발음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프랑스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보다 간소화한 체계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 모음체계

1) 구강모음

혀의 위치	앞		뒤
입술의 모양 간극도	평순	원순	원순
폐음	i	y	u
중간음	E	œ	o
개음	a		

구강 모음으로 위와 같이 7개를 제시하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히 교과서 내의 어휘를 구별하는데 충분하며, 따라서 초급 수준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

지 않는다. 표준 프랑스어의 중간음 모음인 /e~/ /ɛ/를 /E/로, /ø~/ /œ/는 /œ/로, 그리고 /o~/ /ɔ/를 /O/로 간극도를 더 이상 구별하지 않고 통합하여 원음소로 표기하였다. 또한 개음 모음도 전설음, 후설음을 구별하지 않고 /a/ 하나로 보았다. 이것은 앞서 발음을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의 내용을 분석할 때 우리가 이미 주목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들 대립은 강세의 위치와 음절의 유형에 따라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Passy 와 Delattre 같은 음성학자들은 이것을 위치법칙을 따른다고 한다(Léon, 2007: 118). 즉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이들 모음이 강세 폐음절에서는 열리고 강세 개음절에서는 닫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 쌍의 음색 차이는 남불 지방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 지방 출신이 아닌 화자라도 주의 깊게 들어 보면, 이들 대립이 점점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ø~/ /œ/ 대립의 음운 기능 효율성이 예를 들면 *veule/(ils) veulent*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예를 들면 “*rose*”를 [roz]라고 하는 대신에 [Rɔz]로 발음한다고 해서 전혀 듣기에 거부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thé*와 *taie*를 똑같이 발음해서 [e]와 [ɛ]의 대립이 사라진 것도 대화 중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이다.

2) 비모음

혀의 위치	앞	뒤	
입술의 모양	평순	평순	원순
간극도			
폐음	ɛ		ɔ
개음		a	

비모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ɛ/ 과 /œ/ 이 대립을 이루고 있는 변별 쌍의 수는 극히 적기 때문에, “*ain*” 이나 “*un*” 이나 모두 입술의 모양을 구별하지 않고 [ɛ] 으로 발음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표준화한 프랑스어의 체계에도 그렇게 나타나있다. 문맥에 따라서 구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음체계를 위와 같이 설정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에 전혀 무리가 없다.

2. 자음체계

프랑스어 자음체계는 모음체계에 비해 아무리 다양성을 고려해보아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여기에서는 [ŋ]을 제외시켰는데, 이것은 영어에서 차용된

단어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미 영어 학습에서 익숙해 있으므로 굳이 프랑스어 체계에 포함시켜 체계 자체를 더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음장소 \ 조음방법		조음장소						
		양순음	순치음	치조음	전부 경구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구개수음
폐쇄음	무성음	p		t			k	
	유성음	b		d			g	
마찰음	무성음		f	s	ʃ			
	유성음		v	z	ʒ			R
비음		m		n		ɲ		
설측음				l				
반자음						j, ɥ	w	

V. 결론

프랑스어를 처음 접할 때, 학습자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그래서 학습의 의욕까지 감소시키는 분야가 아마도 발음일 것이다. 또 발음은 단 시일 내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으니 학습자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프랑스어 학습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까지 이르게도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등과정의 프랑스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규범의 발음체계를 제시하였다. 프랑스에서 출간된 FLE 교재와 발음을 전문적으로 다룬 저서에서도 초급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프랑스어 표준체계를 그대로 소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프랑스어에서 음소의 사용 빈도수와 중화현상을 고려하고 교육적 규범을 습득시킨다는 관점에 따라 판단하면 20개의 자음과 7개의 구강 모음, 3개의 비모음으로 프랑스어의 음성 대립을 학습자에게 학습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교수자의 발음 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학습자들에게 의사소통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음운대립을 먼저 제시하고, 효율성이 극히 적은 음운 대립은 차차 학습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충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언제나 교수자는 학습자가 의문시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며, 더 높은 학습 단계에서는 지역적, 문체적, 사회적 변이음들까지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중등 과정에서는 이런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 Borrel, A. et M. Billieres (1989), L' étude diachronique de la notion de norme du français contemporain, *La linguistique*, vol 23, fasc.2, PUF.
- Fouché P. (1968) *Traité de prononciation française*, Klincksieck.
- Gadet, F. (1989) *Le français ordinaire*, Paris, Armand Colin.
(2003) *La variation sociale en français*, Paris, Ophrys.
- Léon M. et P. Léon (2009) *La prononciation du français*, Armand Colin.
- Léon P. R. (1971) *Prononciation du français standard*, Didier.
(2007) *Phonétisme et prononciations du français*, 5e édition, Armand Colin.
- Léon P., M., F. et Alain Thomas (2008) *Phonétique du FLE*, Armand Colin.
- Le Robert oral-écrit(1989) *L' orthographe par la phonétique*, Dictionnaires le Robert
- Lerond A. (1980) *Dictionnaire de la prononciation*, Larousse.
- Martinet A. et H. Walter(1973) *Dictionnaire de la prononciation française dans son usage réel*, France expansion.
- Martinie, B. et S. Wachs(2007) *Phonétique en dialogues, niveau débutant*, Clé international.
- Mounin, G. (1975) *La prononciation française dans son usage réel*, *FoDL*, no 116.
- Straka, G. (1963) La division des sons du langage en voyelles et consonnes peut-elle être justifiée?,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de l' Université de Strasbourg I*, pp.17-99.
- Valdeman A. (1998) La notion de norme pédagogique dans l' enseignement du Français Langue Etrangère, *Orbis*, t.10, 177-188.
- Warnant, L. (1987) *Dictionnaire de la prononciation française dans sa norme actuelle*, Duculot.

한문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151-748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 880-6133

이메일: mhhan@snu.ac.kr

Received on August 30, 2013

Reviewed on October 18, 201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ember 18, 2013

Accepted on December 6, 2013